

2) 기능별 유형

농악은 연행하는 목적에 따라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진다. 흔히 농악은 그 기능에 따라 축원농악, 노작농악, 걸립농악, 연예농악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축원농악이란 마을의 공동제사(당산제, 동제)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흔히 마당밧이나 지신밧기로 불린다. 노작농악이란 주로 수도작 농사활동 속에서 노동의 고달픔을 잊고 일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하는 농악을 말한다. 그리고 걸립농악은 마을의 공공기금이나 절의 중수기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농악대를 조직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는 농악을 말하며, 연예농악은 예술적인 연기를 바탕으로 삼는 전문적인 농악으로 남사당패 농악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이러한 농악의 형태는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는데 축원, 걸립, 연예의 과정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악의 친화과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악의 형태는 민중의 생활사 속에서 결정된다. 또한 연행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만큼 마당밧이곳에서는 축원 성격을 띠고, 두레에서는 노작 성격을 띠고, 기금마련시에는 걸립 성격을 띤다. 농악이 성한 마을에서는 앞의 여러 농악을 다 쳐오고 있다. 대개의 농악이 이런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앞의 과정들은 농악의 보편적 분화과정을 말할 뿐, 단계별 발전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으로 우위를 따질 수도 없다.

한편 최근 행해지고 있는 농악은 기능별 분류가 큰 의미가 없고 마을 공동체로부터 이탈해 있는 실정이다. 요즘 농악을 기능에 따라 굳이 살펴본다면 축원적인 성격을 지닌 마당밧이곳과 약화된 걸립농악만이 있을 뿐 노작농악이나 연예농악은 거의 소멸해버린 상태이다. 여기에 새로운 형태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실내무대에서 흔히 행해지는 무대농악과 경연대회 시 행해지는 경연농악 등을 들 수 있다. 농악의 유형 중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축원농악과 노작농악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축원농악의 마당밧이곳은 정월에 행한다.(마당밧이곳에는 걸립적인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농기를 앞세우고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으로 가서 마을의 안녕과 마을사람들의 무병장수 그리고 풍년과 풍어를 비는 당산굿을 치고, 이어서 마을의 공동샘에서 샘굿을 친다. 이어 집집마다 순방하면서 농악을 치는, 본격적인 마당밧이곳을 행한다.

문굿을 치고 성주굿, 조왕굿, 철룽굿, 곳간굿, 외양간굿, 샘굿 등을 친다. 그리고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마당밧이곳의 중심 곳이라 할 수 있는 판굿을 한다. 이때 그 집에서는 쌀이나 돈을 내놓기도 하고 술과 닭죽을 대접한다. 그러면 곳패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이때 농악대의 앞뒤를 오가면서 갖은 우스갯짓과 농담을 주고받던 잡색들이 나와 한바탕 잡색놀이이라는 탈놀이를 연희한다.

다음은 노작농악으로서의 두레농악이다. 두레는 모심기, 논매기 등의 논농사에서 집중적으로 노동력이 요구되어 만들어진 공동노동 조직이다. 두레에서 농악과 농요는 필수적인 것인데, 두레가 성했던 곳에서는 자연 농악이 발달했다. 호남지역에 농악이 성했던 것도 이러한 토대에서 가능했다. 모내기를 할 때는 모방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때 치는 농악을 풍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논매기를 하고 끝매기인 만도리가 끝나는 날 장원질을 하며 농악을 치는데, 이를 '풍장'이라 한다. 그 뜻은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장원을 축복한다는 의미이다.